

주님께서 보광(普光)하신 지 12년이 지나는데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자신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에 주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사람들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급기야는 자신에게 주님이 임하셨다고 하며 자신이 조희성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조희성의 이름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사진도 바라보지 말라며 완성영이니 미래지향적이니 하면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는 주님의 보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疑心)이 들어가 인간의 머리를 굴리다가 무당(巫堂) 신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주님 다음 사람이 라고 하니 그곳에 갔다가 똑같은 무당 신을 받은 것이다.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에 직접 주관(主官)하는 승리제단 역사**

영모님께서는 맨 꼬리라고 하시며 마지막 사람임을 강조하셨다. 그 마지막 사람은 일곱 번째 천사인 완성자이신 조희성님이시다. 완성자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완성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回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役事)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죄인의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딱 그 만큼만 당신의 존재



**영적모세**



를 보여주신다. 주님은 영적모세이시다. 모세가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렸듯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는 자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지적에 두고 죽었으며 여호수아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다. 영적모세인 우리 주님 역시 영적 가나안 땅의 정복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광하셨다. 너무나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 영적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언약의 궤를 매고 요단강을 건넜듯이 우리도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 주님께서 당신의 능

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 오늘날의 승리제단의 상황(狀况)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지도부를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고집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그 의견이 왜 현 상황에서 최선의 의견이 아닌지 여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는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는지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지도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主張)을 관철(貫徹)시키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고집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승리제단을 좌지우지 하려는 사람이 바로 승리제단의 최순살이다.

또한 남에게 혐오감을 주든 말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끝까지 고집하는 행위도 자제(自制)해야만 한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상(偶像)을 만들어 온갖 만행(蠻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무당 신을 받은 자들의 행각을 보면 너무나 모세시대와 닮아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시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이려면 내 주장 내 고집을 꺾어야 한다**

승리제단은 다른 조직이나 단체와 달리 구도(求道)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곳이다. 이 말은 도를 닦는 입장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일의 성사(成事)보다 자신의 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지는 이야기다. 우리가 구도자의 자세로 일을 해나간다면 총제님과 신도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똬뚝 뭉쳐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 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What is the genuine 'Belief' ?**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Human beings will be saved through Belief(Ephesians 2:8). This means that the power of salvation lies in Belief(Hebrews 10: 38).

▶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에베소서 2:8). 이것은 구원의 힘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히브리서 10:38).

By the way, Belief in God arises when man knows God. If man does not know God, he cannot believe in God. In other words, only the Holy Spirit knows God(1 Corinthians 2:10).

▶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발생한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은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한 것이다(고린도전서 2:10).

But self does not know God. Self is Satan and the source of doubt. It cannot know God. Only God knows God. Therefore, God is the source of Belief and the subject of Belief. So to speak, only the Holy spirit can believe in God.

▶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나'는 마귀이며 의심의 근본이다. 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근본이시며 믿음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The Bible says that Belief is God's gift(Ephesians 2:8). The best gift that God has given to man is immortal life. But, Immortality can be gained only when man has overcome the spirit of death, Satan.

▶ 성경에서 말하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에베소서 2:8).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다. 그러나 영생은 오직 인간이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길 때만이 얻을 수 있다.

Therefore, Belief is the Spirit of God which can overcome the Spirit of Death, Satan. And the Spirit of God which can overcome the Spirit of Death is the Holy Spirit and the Fruit of Life.

▶ 따라서 믿음은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생명의 열매이다.\*

by Alice

**속담 속의 영생학**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도 잘 꿰진다**

공자님은 솔직하게 자신도 인(仁)을 이루기 어렵다 하셨고 인(仁)이 이루어진 조건부 이상국가론을 말씀하셨다. 인간이 취하여야 할 모든 행동의 지향점인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본질을 인(仁)이라 하고 명확한 설명 대신 성인만이 능히 이를 수 있는 경지라고만 말씀하셨다. 인(仁)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론으로 덕(德)을 배우는 것이다. 천(天)을 섬기는 것이다. 성(性)을 실현하는 것이다 등으로 후대에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예외 없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은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이해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오류는 늘 퇴폐와 향락과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그 체제는 멸망을 면치 못하였다. 하여 그 첫 단추를 다시 꿰고자 한다. 인(仁)이란 결국 형식적인 예법이나 꾸미는 인간성이 아닌 부정부패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내면적이고 정신적 도구일 것으로 생각한다.

선왕의 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방법론,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방법론, 조상을 숭상하고 높은 지위와 웃어튼을 공경하는 방법론 등등, 적어도 이 나라 역사에서 실제로 시도되었던 방법론들은 표면적 인간성(性)이 중심 주체가 되어 실천되었다는 사실이다. 표면

적 인간성(性)이 사서삼경과 선왕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차별하는 편견과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고, 지위/신분/계급으로 경계를 두고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를 규정하게 된다. 고목나무에 버섯이 피듯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 사이엔 부정부패가 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그러므로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인(仁)을 이루기 위해 먼저 표면적 인간 자신에 대한 성(性)의 정체를 파악해야 되겠다. 공자님보다 100년 후배이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도 답을 못냈고 오늘날까지 인간성(性) 곧 '나 자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다.

오직 극기자(克己者)만이 "너와 나를 구별하는 개체의식 즉 표면적 인간성(性)이 반부귀천의 차별을 가져오는 마귀 마음이다."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인(仁)을 이루는 경지에 이르는 성인의 마음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게 되면 '나(我)'라는 개체의식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 속에 평화가 있고 하나 속에 행복이 있고 하나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만고에 변치 않는 진리이다.\*

참고은 기사

**우리말 바꾸기**  
**의존 명사①**

우리말에서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는 중요하면서 까다롭다. 자세히 알아보자.

예) 아는 것, 가는 데가 어디냐, 그럴 리가 있느냐, 할 수 있는 일, 떠난 지가 오래다

위의 예처럼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앞말과 굳어버린 것으로 볼 경우에는 붙여 쓴다.

“편” : 이편, 저편, 그편, 오른쪽, 왼쪽, 건너편

의존 명사가 다른 품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몇 회에 걸쳐 소개한다.

1) '뻐'

'뻐'는 접미사로 체언에 붙을 때는 붙여 쓰지만 용언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어 띄어 쓴다.

예)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너뿐이다.(대명사에 붙은 접미사) / 그저 황홀할 뿐이다.(형용사 뒤에 쓰인 의존 명사)

2) '밖에'

'밖에'는 '~뻐'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붙여 쓰지만(이 경우 반드시 부정어가 따름) '이외의' 뜻일 경우와 '안'과 상대적 의미로 '바깥쪽'을 나타낼 때는 명사가 되므로 띄어 쓴다.

예)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너뿐이다) / 이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풍구 밖\* 이승우 기사

“것” : 이것, 저것, 그것, 아무것, 낱것, 생것, 산것, 이것저것

예외) 가진 것, 해야 할 것이다, 어느 것이 주제를 더 잘 드러내고 있는가?

“번” : 이번, 저번, 요번, 먼번

예외) 지난 번, 요전 번

“이” : 이이, 저이, 그이, 늙은이, 젊은이, 못난이

예외) 사랑하는 이, 저기 가는 이는 누구인가?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탈북 식량과 자유만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인도네시아의 무인도로 가자 그곳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면 파푸아뉴기니로 가자 거기도 안 되면 아마존 삼림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자 야!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엔진고장 그리고 표류 일본열도에 흘러들어가니 후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30년 만에 털어놓는 탈북 비화!!!**

**김만철 선생은**  
1987년 1월 김일성 공산정권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11식구를 몽땅 데리고 배로 탈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 탈북 후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과 극적인 탈북과정을 강연하면서 강연료로 받은 돈으로 남해에 평화기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모순 투성이의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더욱 의문만 생겨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승리제단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판매처: 교보문고, 도서출판 해인(032-343-9985)